

# 대선잠룡 누굴 지지하나...광주·전남 의원들 아직 정중동

호남 주자 이낙연 지지율 하락 속 민형배 의원, 이재명 공개 지지 파장 지역의원들 설 이후 민심 흐름 파악 대선후보 지지 입장 표명 나설 듯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대권 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호남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호남 대전'이 조기 접화할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일단,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정중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전남 출신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도전에 나서고 있는데다 코로나 19 사태가 위중하고 여론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대선 경쟁 국면에 직접 나서기 보다 광주·전남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 출신이 여론의 대선 주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권재창출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 국회의원인 민형배(광산) 의원이 여론의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 발언에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민 의원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발언) 실망감이 컸고, (이 대표에 대한)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이나 기대에 대한 미련을 조금 버렸다"면서 "앞으로 어떤 후보가 나타날지 모르겠으나 이재명 지사가 가깝다고 본다"고 밝혀, 사실상 이 지사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 의원의 발언이 차기 대선 구도와 맞물려 지역 정치권의 줄 세우기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장 지역 정치권에서는 후폭풍 조짐이 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낙연 대표는 광주 모 국회의원에 전화를 걸어 민 의원의 행보에 대해 "아쉽다,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광주·전남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낙연 대표 특보단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민 의원의 발언이 그리 과도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이 대표 특보단에는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개호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고 이병훈, 이형석, 송갑석, 서삼석, 김승남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개호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이 대표가 전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특보직을 '올려 가져먹기'로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출신 모 의원은 "일부 특보들은 이 대표 측에서 정치적으로 '보쌈'해 간 측면이 크다"며 "거부할 수도, 수락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특보로 발표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며 신춘문(친문재인) 그룹에 속해있는 민 의원의 발언이 개인적이지 않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을 이룬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 센스가 빠른 민 의원이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한 돌발 발언에 나설 리 없다는 것이다.

또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 의원과 광산을 지역구에서 두 번이나 경선을 치렀던 박시중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이 최근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으로 임명된 것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물 밑에서 이재명 지사와 소통해왔던 민 의원이 이를 계기로 이 지사에 대한 공개적 지지에 나섰다는 것이다.

민 의원의 발언이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따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3월 이 대표가 당권을 내놓고 대선 도전을 선언할 때까지 당분간 입조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설 명절을 지나 오는 3월께나 돼야 호남 민심의 흐름이 일정 정도 형성되고, 지역 의원들도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대표가 지지율 반등에 성공,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느냐가 대선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오광록 기자 kroh@

민 의원의 발언이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따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3월 이 대표가 당권을 내놓고 대선 도전을 선언할 때까지 당분간 입조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설 명절을 지나 오는 3월께나 돼야 호남 민심의 흐름이 일정 정도 형성되고, 지역 의원들도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대표가 지지율 반등에 성공,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느냐가 대선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오광록 기자 kroh@



진땀 나는 청문회 준비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청문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도착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기 전 김이 서린 안경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 국산 SLBM 지상 사출시험 완료 사정 500km...연내 수중시험 할 듯

군 당국이 3000t급 이상 잠수함에 탑재할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지상 사출 시험을 마치고, 연내 수중 시험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13일 "우리 해군 잠수함에 탑재할 SLBM의 지상에서 사출 시험이 작년까지 끝났다"면서 "올해에는 수중에서 사출 시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중 시험 일정과 시험 수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군은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인 '현무-2B'를 기반으로 SLBM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수중 사출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끝나면 3천t급 이상의 잠수함에 탑재할 계획이다. 해군은 중형 잠수함 건조와 관련, 1차로 도산안장호함(3000t)급의 3척에 이어 2차 3600t급 3척, 3차 4000t급 이상 3척 등을 차례로 건조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4000t급 이상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내에 이뤄질 수중 사출 시험은 수중 바지선에서 진행되는 것이 유력해 보이지만, 실제 3000t급 1번 함인 도산안장호함에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실제 잠수함에서 수중 사출 시험을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이재명 25.5% 윤석열 23.8%·이낙연 14.1%

한길리서치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 이재명, 호남서도 이낙연 따라붙어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양강을 형성하며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 지사에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밀렸다.

한길리서치가 쿠팡뉴스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5.5%, 윤 총장은 23.8%를 얻었다. 두 사람의 격차는 1.7%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 3.1%p) 이내다. 이낙연 대표 선호도는 14.1%로 조사됐다. 이외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7.4%, 무소속 홍준표 의원 5.9%, 정세균 국무총리 3.4%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이 지사는 인천·경기에서 35.7%의 지지를 받아 윤 총장(20.1%), 이 대표(12.9%)를 넉넉하게 앞섰다. 윤 총장은 서울에서 24.3%로 이 지사(20.0%), 이 대표(15.6%)를 제쳤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서도 각각 30.4%, 30.7%를 얻어 선두에 섰다.

이 대표는 '뺑뺑'인 호남권에서도 29.7%로 이 지사(25.3%)에 오차범위 내로 따라잡았다. 범여권 주자간 경쟁에서는 이 지사가 28.2%, 이 대표가 15.3%로 역시 이 지사가 앞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2%, 정의당 심상정 의원 2.9% 순이었다. 범야권에서는 윤 총장이 22.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0.6%,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7.7%를 얻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0.7%, 부정평가는 56.9%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4.9%, 국민의힘 22.6%, 정의당 5.0%, 국민의당 4.4%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한국형 뉴딜 펀드에 5000만원 투자

문재인 대통령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펀드로 불리는 '필승코리아 펀드' 수익금을 포함, 총 5천만원을 '한국판 뉴딜 펀드'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필승코리아 펀드에 투자한 원금을 두고 수익금을 환매한 뒤 여기에 신규 투자금을 보태 한국판 뉴딜 펀드 5개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9년 8월 26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 기업에 투자하는 'NH-아문디 필승코리아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5000만원을 투자했다. '문재인 펀드'로 불리며 출시 1년만에 50%이상의 수익률을 보였고, 지난 6일 수익률 90%이상을 기록하

며 인기 펀드로 자리매김했다. 문 대통령은 최소한 4천만원 이상 수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 대통령은 '소부장 펀드'에서 5000만원 원금은 그대로 두고 수익금만 환매할 예정이다. 여기에 신규 투자금을 보태 한국판 뉴딜 펀드 5개에 각각 1000만원씩 투자한다. 문 대통령이 가입할 신규 펀드는 ▲삼성뉴딜코리아펀드 ▲KB코리아뉴딜펀드 ▲신한BNPP아름다운SRI그린뉴딜펀드 ▲미래에셋 타이거 BBIG K-뉴딜 ▲하나로FNK뉴딜디지털플러스ETF 등이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이 국민 삶의 질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며 "이번 결정은 대기업-중소중견기업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를 대한민국 미래에 다시 투자한다는 메시지를"라고 설명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합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